패널 토의

간호학적 견지에서

李 環 滉 박사
〈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

간호원의 해외취업은 "해외진출"이라는 새로운 용어와 함께 65년도의 보사부와 서독과의 집단고용계약 체결이 계기가 되여 더욱 활발해 지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은 해외진출이라는 말은 어느듯 없어지고, 단순히 해외취업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두뇌 또는 기술유출이라고 비난을 받을 만큼 해외취업이 보편화 되였읍니다.

간호학적 측면에서 간호원의 해외취업을 생각해 볼때 본인은 가끔 이율배반적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정부의 인력수출 정책과 이민정책은 인력소비국가들의 인력수입정책과 때가 맞아 대량의 간호인력을 必要로 했기 때문에, 한국간호에 量的 혁명을 가져온 동시, 사회여론과 더불어 더욱 중요시되는 여성전문직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점을 들 수 있읍니다.

反面, 우리나라의 국민보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높은수준의 전문직 간호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교육투자면에서 국가적손실이 아닐 수 없고, 따라서 국민보건에 큰 위협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간호원의 해외취업을 두 종류로 대별할 수 있읍니다. 기술이민 형식을 취하는 北美지역 취업과 집단고용계약 형식을 취하는 서구 즉 서독취업으로 나눌 수 있읍니다. 북미지역 취업은 전문직 간호원이라는 것이 상식화 되여 있고, 서독의 경우 전문직 간호원과 간호보조원을 함께 묶어서 수출이 됨으로, 상당한 혼든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北美지역 취업은 이민형식을 취한 취업인만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의심스러우나, "두뇌유출"의 가능성이 내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서독취업 경우 인력수출 정책상 실행되는 것인만큼, 경제적利點을 무시할 수 없으리라 생각되나 대량의 간호보조원으로 구성된 人力인만큼 "두뇌유출"의 위험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간호원의 해외취업이 간호교육면, 간호업무면, 그리고 간호전문직면에 어떠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교육면에 미친 영향

1) 간호교육에 量的 革新을 초래했읍니다. 간호인력의 국내외 수요공급 균형을 위하여, 종래의 한 학급 정원 30~40명이 80명 내지 160명으로 증원되여, 270% 내지 400%의 정원팽대로서 양적 개혁을 가져왔읍니다.

量的 팽대에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시설확충, 자격있는 교수진의 확보등이 불가능하여, 교육의 質的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量的 壓力

때문에, 간호교육목적에 포함해야 하는 ① 의식영역, ② 정서영역, ③ 기술영역 등의 계발을 위해서의 학습경험 편제가 불가하여, 의식구조변경에만 치중하여왔다고 볼 수 있읍니다.

2) 간호학계 지망자들의 사회계층 배경이 달라졌읍니다.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中上級 以上의 사회계층에 속하는 父母들이 딸들을 간호학계 학교에 보내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읍니다.

해외진출 또는 해외취업, 이민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 동기에서 자극되었다고 생각됩니다.

3) 간호학계 지망자들의 학업성적수준이 向上되였다고 생각됩니다. 즉 정원증가가 뒤따르지 못하는 입학경쟁이 치열해져서, 고교성적이 上 또는 中上 이상이 되어야만 간호학계 학교에 入學할 수 있다는 통념을 가지게 된 사실은 간호원이라는 교육상품에 확실히 그 수준을 引上시켰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읍니다.

4) 간호학계 정원이 증가되고, 각 종합대학교 또는 의과대학에 간호학과가 증설됨에 따라 간호교수진의 양적 질적 요구에 의해서 각 간호대학에 대학원과정 설치동기에 한 요인을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反面 신설학교의 시설미비와 교육계획미비는 간호교육의 질적수준을 저하시키는데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호업무면에 미친 영향

1) 간호업무수행에 일대 혼란을 가져왔읍니다. 간호행정자들은 누구보다도 간호원의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상 피해를 많이 보았으며, 궁극적인 피해자는 환자나 지역사회 인구였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내 모종합병원의 경우 거의 50%에 가까운 年間 간호원 이동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간호행정의 경우도 비슷하며 充員이 힘들기 때문에, 10여년 비활동 간호원을 재교육 없이 기용하는 형편이라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대개의 경우 신졸업생 취업으로 기관간호업무는 외형상 지속되고 있으나, 환자간호와 지역사회건강 간호의 質的면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읍니다.

2) 기관내의 간호보조원 기용을 가져왔읍니다. 간호보조원제도의 설치동기는 지역사회 보건사업강화의 일환책으로서, 특히 농어촌지역민을 위한 최일선 요원 제공에 있었다고 기억됩니다. 그러나, 종합병원에서의 대폭적인 전문직 간호원들의 해외진출로 인한 간호인력부족과 일반개업의들의 저임금 간호인력수요 등이 요인이 되여, 자격 또는 무자격 간호보조원들의 의료기관내 기용이 점차적으로 이루워져, 원래 설치목적과는 다른 양상의 취업현상을 보게 되였읍니다.

간호보조원 기용은 간호업무의 전문적 간호기능과 책임을 간호보조활동과 구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직 간호업무한계를 上昇시키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간호행정상 감독권이 광대해지고, 간호원의 교육 및 훈련기능을 강조하는 계기마련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간호전문직 면에 미친 영향

간호원의 해외취업이 인력수출정책에 따라 이루워진 量的으로 가장 큰 인력을 차지해왔기 때문에 간호인력수출 초창기의 간호원의 數的 부족에서 온 희소가치에 따라 간호원의 대우개선, 사회적 지위향상에 박차를 가해주었읍니다. 또한 한국의 간호를 떠난 세계의 간호 가능성, 전문직 및 보조직 간호개념의 차이 도입, 간호교육수준의 최저선 통일이 이루워졌고 간호체계확립에의 노력, 국내의 간호인력 수급계획등에 참여하는데 있어 간호원의 해외취업은 전문직 간호를 대변하는 대한간호협회에 활동영역의 팽대와 발언권의 강화에 영향을 미쳤고 다양한 전문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커다란 숙제를 안겨주었다고 보겠읍니다.

몇가지를 具體的으로 생각해 보면 :

1) 한국의 간호가 지리적 또는 국가적 경계없이 그 활동무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온 것은 전문직으로서 확실히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믿는 반면, 이로 인하여 야기된 부정적 반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의 한국간호는 국제간호협의회의 정회원국 간호이기 때문에 명실공히 세계의 간호인 동시에 그 행동반경에 제한을 받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간호원의 취업국 간호단체로부터 거부적인 태도와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는, 모 취업국의 전문직 간호단체가 자기정부의 인력수입정책을 비난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행동을 표면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활동무대를 세계적으로 넓히려는 전문직 야망을 실현시키는데 있어 취업국의 전문직단체의 거부는 큰 저해요인이 아닐 수 없으며, 대한간호협회로서 고민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2) 간호원의 해외취업은 일반적으로 간호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확실하지만, 일반보도망을 통해서 일부 해외취업 간호요원들의 사생활을 폭로시켜, 그 진부를 가리기 앞서, 전문직업인의 윤리도덕면 운운으로 전체 전문직 간호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문직 간호단체로서 두가지 고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① 전문직 간호원과 보조직요원을 "간호원"으로 통칭해서 보도진이 취급하기 때문에 전문직 간호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심과, ② 사전예방책을 위해서 해외취업예정 간호요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필요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데 대한 現實수용과 합리적 방안 모색에 대한 숙제를 들 수 있읍니다.

3) 간호인력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측과 간호전문직 견해와 기준차이에서 결과하는 잉여간호인력에 대한 처리와, 간호교육 투자팽대에 불일치한 간호상품가의 하락면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시 말해서 집단고용계약체결이 조만간에 불가능할 시기가 올 것이 틀림없으며, 대량 생산된 간호상품은 국내시장에서의 소비만이 가능할때, 그 대책문제가 전문직 입장에서 중요시 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내에서의 보다 광범위한 시장개척이 필요하고, 제三국에의 시장개척 역시 고려에 넣지 않을 수 없겠읍니다. 따라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제일급 간호인력 수급유지 정책이 간호인력 수출정책과 동시에 수립돼야한다고 믿습니다.

결 론

서두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간호원의 해외취업 문제는 二律배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읍니다.

간호전문직의 "붐"을 이르켜 量的 팽대와 활동반경의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한 긍정적 발전과 더부러, 필연적으로 야기된 국내 간호업무의 質最面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었으며, 또한 간호전문직에 큰 과제를 남겼다고 할 수 있읍니다.

위에서 지적한 몇가지 부정적 영향을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 必要하다고 생각되여 다음 몇가지를 제의하고 싶읍니다.

① 간호교육의 量的팽대에 대등한 質的 교육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제의하며, 각급 간호교육제도를 총괄해서 자문할 수 있는 문교부의 고위 간호교육행정직 설치를 제의하고 싶읍니다.

② 해외취업을 일방적으로 두뇌 혹은 기술유출이라는 표제하에서 비난하기전에, 일단 현실수용을 하여, 취업동기를 분석하고,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되겠읍니다.

合理的이고 長期的인 간호인력 수급계획 수립을 위해서, 보사부, 문교부, 간호협회, 그리고 대학교 간의 상호협력을 촉진하며, 자문과 연구결과에 기본을 둔 정책제정을 할 수 있는 상설기구 설치가 요구됩니다. (National Committee 성격)

③ 해외취업 경험을 개인적으로나 전문직업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하기 위하여, 대한간호협회에서의 직업조정에 관련한 훈련계획수립과 실천이 요망됩니다.

마지막 끝맺는 말로서 간호원의 해외취업은 장기적 입장에서, 두뇌유출, 두뇌유출예방, 두뇌재수입, 민간외교 또는 세계속의 한국간호 등 다각도에서, 연구계획 되어야하며, 동시에 일방적인 人力수출정책때문에 국민보건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믿습니다.